

효성 부사장, 중국 우의상 수상

스판덱스 공장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... 한국학교 설립 기부금도

효성(회장 조석래)은 중국 효성스판덱스가공유한공사 법인장인 조현택 부사장이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우의상(友誼賞)을 수상했다고 10월1일 밝혔다.

‘우의상(友誼賞)’은 중국정부가 문화, 교육 및 과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외국기업의 경영자와 전문가에게 수여하는 중국 최고 권위의 상으로 조현택 부사장은 중국 절강성 가흥시로부터 국가우의장(國家友誼獎) 추천을 받았다.



조현택 부사장 Profile

- 1951년 1월7일생
- 1964년 부산고 졸업
- 1974년 동양나이론 입사
- 1995년 동양나이론 상무
- 2000년 (주)효성 섬유PG 스판덱스PU사장, 전무
- 2003년 (주)효성 섬유PG 스판덱스PU사장 겸 폴리에스터원사PU사장, 부사장
- 2004년 (주)효성 섬유PG 스판덱스PU사장 겸 나이론원사PU사장, 부사장

조현택 부사장은 2001년부터 중국 절강성 가흥지역에 스판덱스 및 타이어코드 공장을 설립해 중국 기술인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고, 중국 화동지역의 유일한 한국학교인 상해한국학교 설립을 위해 기부금을 기부하는 등 한중 민간협력 관계발전에 공헌해 왔다. <한유진 기자>

<화학저널 2004/10/05>